

<방언의 능력>



Ebenezer Theological Seminary

『방 언』

<막16: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 방언(γλῶσσα 글롯사)이란 무엇인가?

천상의 언어이다. 방언은 나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의 혀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 성경에 나타난 방언

① 구약의 방언: <라손, 사파> 이방나라의 다른 언어. Another Language. 지방사투리.

<창11:7 바벨탑사건으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② 신약의 방언: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 제일먼저 나타난 현상이 <방언>이다.

<행2: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 방언은 믿는 자임을(성령님의 임재) 증명하는 표식. Sign

2. 방언의 종류

<고전14:18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μᾶλλον 말론. more. 추가. 더 많은 수)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① 나의 방언 : 하나님께 향한 일반적인 방언.

② 하나님의 방언 :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한 말씀(방언)

③ 능력방언 : 방언을 통한 능력 부으심.

④ 사역방언 : 악한 것들을 향한 방언.

⑤ 사탄방언 :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의 방언.

※①-④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⑤ 악한 영의 역사이다.

3. 방언은 언제 어떻게 임하였는가?

<막16: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행2:4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50일 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여명의 무리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위에 임하더니 모두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베드로가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으며,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그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 하고 안수할 때 / 성령이 임하시므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하고 예언도 했다고 기록.

① 믿는 자 :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자.(성령임재)

②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 = 믿는 자

성령세례와 성령충만을 통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와 증거는 바로 입술과 혀를 통한 영적인 고백인 “방언의 말함”이다.

Q. 방언을 못하면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인가?

A. 방언은 성령의 활동이므로 방언을 못 함은 성령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

3. 왜 방언을 해야 하는가?

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방언은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언어이다. 통변의 유익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② 그 뜻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③ 기도하기 위해: 방언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는 비밀한 언어이다.

방언기도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 자신이 방언을 하고서도 자신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영이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방언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비밀의 기도이기 때문에 사탄도 알아듣지 못한다.

방언 기도는 비밀스럽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방언을 말하면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만 통하는 언어가 된다.

성령은 각 사람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알아듣지 못하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

사탄이 그 내용을 알게 되면 미리 방해하기 때문에 방언이 필요하다.

말로 하면 마귀가 알아듣고서 미리 훼방을 놓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마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도 알아듣지 못하게 우리의 속사정을 하나님께 방언으로 간구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알아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다.

그 때문에 마귀도 우리의 사역을 훼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비밀한 언어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비밀의 언어가 방언이다.

④ 방언은 성령충만의 확신을 준다.

“왜 방언을 해야 하는가?”

성령이 충만할 때 방언이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듯이, 방언을 말하게 되면 내가 방언을 통해 성령충만의 확신을 얻게 된다. 그래서 방언에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이다.

또한 방언을 말하면 성령세례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얻어 의심하지 않고 성령충만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⑤ 방언은 자기 신앙의 덕을 세운다.

‘덕’(οικοδομή 오이코도메) 라고 말한다. 그것은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오이코스’ 는 ‘집’ 이라는 뜻이고 ‘데모’ 라는 말은 집을 지어 ‘올라간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의 덕을 세운다는 것으로써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자기 신앙의 집이 점점 더 강하게 지어진다는 의미이다.

방언을 많이 하면 마음속에 믿음의 기운이 꼭 들어차게 되기 때문이다.

방언은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방언은 자기와 하나님 사이의 비밀스러운 대화이면서 또한 자기의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자꾸 허물려고 한다.

마귀가 역사하면 신앙의 집이 무너지고 부서지지만, 방언을 말하면 능력이 점점 강하여져 신앙의 집이 점점 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므로 마귀의 역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⑥ 방언은 마음의 곤비함에서 해방시켜 준다.

<사 28:11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것이 너희 상패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하셨으니>

어떠한 사람은 방언한다고 하면서 그냥 계속 ‘따따따따따’ 하는 사람도 있다.

다른 사람이 그걸 들으면 “저게 무슨 소리야? 저게 무슨 방언이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생소한 입술이다.

누군가 방언을 말할 때 듣기에는 입술 떠는 어린아이의 소리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의 하나이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모든 불안, 초조, 절망, 미움, 원한, 상처들을 깨끗게 해줌으로 심령이 평안해지고 충만함이 나타나게 된다.

<미국 기독교단체 발표: 방언을 말하는 사람 중에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방언기도를 통해서 정신병을 유발할 수 있는 마음의 상처가 다 치료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언기도는 심령을 청소하고(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마음에 감추어진 상처를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된다.

방언하는 이유는 정확히 몰라도 괜찮다. 알아듣지 못해도 관계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심령이 맑아진다는 것이다.

심령이 새롭게 단장되어 건강하게 되고 치료되므로 평안하고 즐겁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⑦ 방언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이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롬8:26-27)

인간은 한 치 앞의 미래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다.

그래서 언제나 불확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것이다.

이런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친히 도우시는데, 그 도우심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연약함을 보신 안타까운 심령)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므로 현재와 내일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가?

성령의 기도는 바로 방언기도이다. 방언을 통하여 탄식하듯이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함께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도 성령께 맡기면 나의 입술로 통해 기도해 주므로(방언)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신다.

⑧ 방언은 통역이 따르면 예언과 같다.

방언을 통역하면 예언과 같다. 성경에는 방언을 하면 통역하기를 간구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방언은 직접 통역 하지 않아도 혹은 그 나라 말로써 알아듣게 할 때도 있고, 통역을 통해서 예언처럼 전해질 때도 있다.

그러나 때로 방언은 일반적인 언어와는 상관없이 직접 통역되어 나타날 때도 있다.

4.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엡6: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힘쓰며>

기도는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라는 것이다. 이는 기도할 때는 방언기도로 하라는 권면이다.